



대한신경외과학회

# 소식

## CONTENTS

- 02 인사말
- 04 임원명단
- 06 학회소식
- 07 회무보고
- 15 병원소식
- 17 분과학회 및 지회소식
- 20 회원동정
- 21 투 고
- 24 Photo Report

Vol. 33

# 인사말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임 영 진

##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께

먼저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 속에 2015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15년 제5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에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아시아태평양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AACNS)와 함께 공동 주관으로 제33차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3년 WFNS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이후 2년만에 국제 신경외과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모든 의료계가 한 마음이 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어려운 사태를 벗어나, 어느덧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신경외과 모든 회원, 전공의와 간호사 여러분을 모시고 제5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의 주제는 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 보고자 'Legacy & Current Trends of KNS'로 정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학술 연구 발표와 더불어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역사', '분과학회의 발전사', '통계로 본 신경외과'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구성하여 보았고 아울러 이번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정책적인 전공의 수 축소 조정으로 각 병원들이 전공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 1년차 전공의 선발에 대하여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많은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2016년부터 변경되는 수련평가 심사 기준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명사초청강연으로 새로운 리더로 부각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Ulrich Stelike감독님을 모시고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신경외과 보험수가뿐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도 지속적인 관심에 맞추어 '2015년도 정부보건의료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님의 강연을 준비하였으며 미래 의료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신경외과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요일은 일선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신경외과 개원의 및 봉직의 회원님들께 실용적인 학문분야 내용 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 세무적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준비하였으며 신경외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Emerging Technique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개원의, 봉직의, 전문병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로 학술교류 및 친목 도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 동 호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외국 초청 연자로는 종양 분야의 Ennio Antonio Chiocca (USA), 손상 분야의 Stephen Honeybul (Australia), 소아 분야의 Mami Yamasaki (Japan), 척추 분야의 Yongjung Kim (USA)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의 최신지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55차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오창완 학술이사, 박정을 총무이사 및 모든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노고에 학회를 대표해 감사드리며, 학회 설립의 취지대로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임 영 진  
회 장 김 동 호

**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열,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재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한대희, 이정청, 김국기, 김 윤, 최중언, 조수호, 조병규, 변박장

**고 문**

김형동, 김문찬,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오석진, 윤일규, 이도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정용규, 여형태, 최낙원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사장 김형동

이 사 김문찬, 정희원, 오석진, 백민우, 이규성, 송시현, 박상근, 임만빈, 이상원, 김수한, 정용규

감 사 김주승, 임영진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사장 임영진

회 장 김동호

차기이사장 장진우

차기회장 최창화

**상임이사**

총무-박정울, 학술-오창완, 고시-김영백, 수련교육-전신수, 기획-정 신, 재무-이무섭, 보험-고 용, 진료심의-최기환, 법제윤리-강성돈, 홍보-고도일, 회원관리-김우경, 전산정보-신형진, 의료정책-박현선, 개인회-최세환, 특별-김근수, 김성민, 김세혁, 노성우, 박인성,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차승연, 최하영, 황정현

별정직 학술지편집-문창택, 학회사편찬-이영배, 교과서편찬-김범태

**특별위원회**

CNS창설위원회-서의교, 경쟁력강화위원회-권정택, 미래위원회-김성호, 보험분야발전위원회-강동기, 상대가치위원회-박봉진, 여의사위원회-박문선, 자문위원회-최낙원, 자보위원회-박 관, 재정위원회-이승훈, 척추분야발전위원회-도재원, 최척계정위원회-문재근

감 사 김은상, 김무성

**이 사**

강동기, 강성돈, 고도일, 고 용, 고현승, 공민호, 권정택, 권창영, 김근수, 김기욱, 김대현, 김동원, 김동호, 김문찬, 김범태, 김법영, 김상우, 김성민, 김성호, 김세혁, 김영백, 김우경, 김은영, 김인수, 김재민, 김주승, 김창진, 김충현, 김태근, 김현우, 노성우, 도재원, 문성근, 문재근, 문창택, 박 관, 박관호, 박문선, 박봉진, 박성춘, 박인성, 박정울, 박진규, 박용석, 박철웅, 박춘근, 박현선, 박화성, 변진수, 서의교, 송준석, 신형진, 심기범, 심찬식, 양희진, 염진영, 오창완, 이경석,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승훈, 이 언, 이영배, 이은열, 이정호, 이창훈, 임영진, 임준섭, 장석경, 장용규, 장일태, 장진우, 전신수, 정 신, 정용태, 정의화, 정재현, 정천기, 조규용, 조근태, 좌철수, 차승연,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창화, 최하영, 현동근, 황정현 (90명)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무위원회**

박정울(위원장), 허 룡, 김종현(부위원장), 고은정, 고준경, 김상돈, 김상우, 김재훈, 김정은, 심정현, 장원석, 주창일, 홍석호, 김승범(간사)

**학술위원회**

오창완(위원장), 고준석, 문병관(부위원장), 강동호, 구성욱, 김기정, 유도성, 윤석만, 이상구, 이형중, 장종희, 정태영, 정현호, 조보영, 주성필, 황신철, 손영제(간사)

**고시위원회**

김영백(위원장), 황 금(부위원장), 김선환, 김인영, 김주한, 문성근, 박성현, 손병철, 송영진, 안재성, 양국희, 이관성, 이기택, 장철훈, 진동규, 피지훈, 현동근, 김경태(간사)

**수련교육위원회**

전신수(위원장), 백광홍, 강희인(부위원장), 권순찬, 김대현, 김상돈, 김석원, 민경수, 양희진, 유도성, 이상구, 이태규, 이형중, 조용준, 조원호, 조정기, 홍석호, 황형식

**기획위원회**

정 신(위원장), 김 엘, 김종규, 김현우, 박준범, 박철기, 유 현, 이기택, 이상구, 이상평, 이종명, 조원호, 한영민, 주성필(간사)

**재무위원회**

이무섭(위원장)

**보험위원회**

고 용(위원장), 이상구, 이종오(부위원장), 강동기, 강신혁, 박호신, 김용배, 김은상, 박관호,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박춘근, 손병철, 양승민, 조병문, 조 준, 진동규, 최병관, 김문규 [간사: 김재훈, 김진욱, 이재학, 박경재]

**진료심의위원회**

최기환(위원장), 김근년, 김승범, 김오룡, 김은상, 류경식, 문승명, 송근성, 신용삼, 이상평, 이선일, 이영배, 장태안, 전상용, 황성규, 조재훈(간사)

**법제윤리위원회**

강성돈(위원장), 강희인, 김석원, 김승민, 김용배, 신승훈, 이상훈, 임동준, 조재훈, 김대원(간사)

**홍보위원회**

고도일(위원장), 김현성, 양승민, 최순규, 한동석

**회원관리위원회**

김우경(위원장), 조정기(부위원장), 구성욱, 김세훈, 김승범, 이기택, 장재철, 오지웅(간사)

**전산정보위원회**

신형진(위원장), 유도성(부위원장), 강석규, 김경태, 김승범, 박경범, 박동혁, 방재승, 서인엽, 이창섭, 이형중, 조도상, 조성진, 최찬영, 남택균(간사)

**의료정책위원회**

박현선(위원장), 김창현, 신준재, 이재학

**개원의위원회**

최세환(위원장)

**특별이사(대외협력위원회)**

김근수(위원장), 김강현(부위원장), 김용배, 신준재, 이용진, 한인보

**특별이사(전공의수련규정개정위원회)**

김성민(위원장)

**특별이사(발전기금관리위원회)**

김세혁(위원장), 공두식, 김영준, 김정은, 김진영, 박성현, 박영석, 엄기성, 이용진, 임종현, 주성필, 홍재택, 김용배(간사)

**특별이사(척추분회)**

노성우(위원장), 진동규(부위원장), 김기정, 김진성, 문승명, 박관호, 박진규, 박춘근, 신동아, 신준재, 장용규, 조대진 [간사: 박진훈, 문홍주]

**특별이사(학술상)**

박인성(위원장), 공두식, 김석원, 김승기, 김종현, 문경섭, 박석규, 이기택, 이상원, 장원석, 장철훈, 홍재택, 강동호(간사)

**특별이사(표준지침제정위원회)**

변진수(위원장), 김 훈, 박근영, 정준호, 조성민, 조영욱

**특별이사(장애판정)**

염진영(위원장)

**특별이사(신경외과전문병원및봉직의관련)**

장일태(위원장), 박춘근(부위원장), 고도일, 김도형, 김인환, 박철웅, 조보영, 최봉식, 최은석, 박진규(간사)

**특별이사(응급, 재난관리)**

차승현(위원장), 류경식, 문승명, 이정호, 조성진, 조준성, 이재일(간사)

**특별이사(관련학회조정위원회)**

최하영(위원장), 김공년, 김인영, 김종규, 이태규, 조철범, 한인호, 이종명(간사)

**특별이사(신경외과명칭개정)**

황정현(위원장), 김대원, 김상우, 문경섭, 조원호, 조철범, 최승원, 최은석, 장원석(간사)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문창택(위원장), 임동준(부위원장), 고현승, 권택현, 김무성, 김범태, 김상대, 김세혁, 김승기, 김우경, 김정훈, 박승원, 박재찬, 성재훈, 송근성, 신용삼, 유 현, 이무섭, 최우진, 최하영, 남병호(통계) [간사: 박용숙, 송상우]

**학회사편찬위원회**

이영배(위원장), 고준경, 김석원, 민경수, 박승원, 백광흠, 유 현, 이윤수, 이호국, 허필우, 황선철, 남택균(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범태(위원장), 윤승환(부위원장), 김정은, 박재찬, 박중태, 원유삼, 유 현, 이상구, 이정길, 임동준, 임수빈, 장경술, 장원석, 정진환,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이기택(간사)

**특별위원회**

**CNS창설위원회**

서의교(위원장), 김민수, 김용배, 김 엘, 김재용, 문경섭, 심숙영, 윤승환, 이기택, 정진환

**경쟁력강화위원회**

권정택(위원장), 고준경, 권현조, 김민수, 김용휘, 김종연, 문경섭, 박근영, 이승환

**미래위원회**

김성호(위원장), 김상대, 김승범, 정성삼, 정을수, 정태영, 정현호, 최병관, 홍석호

**보험분야발전위원회**

강동기(위원장) <보험위원회과 공유>

**상대가치위원회**

박봉진(위원장) <보험위원회과 공유>

**여의사위원회**

박문선(위원장), 김은영(부위원장), 박용숙, 박은경, 심숙영, 이지연

**자문위원회**

최낙원(위원장), 김오룡, 김주승, 박성균, 박진규, 박춘근, 정영섭, 최은석, 최창화

**자보위원회**

박 관(위원장)

**재정위원회**

이승훈(위원장)

**척추분야발전위원회**

도재원(위원장), 박춘근(부위원장), 고도일, 김법영, 김세훈, 김우경, 김현우, 노성우, 박진규, 이승명, 이재학, 임수빈, 조정기, 최은석, 황인석, 박형기(간사)

**회칙개정위원회**

문재곤(위원장), 고경호, 김석원, 박동혁, 정재훈, 조원호, 장인복(간사)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김성호(회장), 김무성(총무), 안영환(학술) (2015.4~2016.3)

**뇌종양학회**

이창훈(회장), 김세혁(총무), 황정현(학술) (2015.8~2016.6)

**뇌혈관외과학회**

오창완(회장), 안재성(총무), 김태선(학술) (2015.2~2016.2)

**소아신경외과학회**

심기범(회장), 김상대(총무), 정태영(학술) (2015.5~2017.5)

**척추신경외과학회**

정천기(회장), 조정기(총무), 이정길(학술) (2015.9~2016.9)

**신경손상학회**

현동근(회장), 이상구(총무), 이장보(학술) (2015.6~2016.5)

**뇌혈관내수술학회**

김범태(회장), 성재훈(총무), 윤석만(학술) (2013.12~2015.12)

**노인신경외과학회**

이 언(회장), 김우경(총무), 박익성(학술) (2015.3~2016.2)

**신경통증학회**

박정윤(회장), 박관호, 강원봉(총무), 신동아, 최세환(학술) (2014.6~2016.5)

**말초신경학회**

양희진(회장), 조도상(총무), 손병철(학술) (2014.12~2015.12)

**신경중환자의학회**

김기욱(회장), 박봉진(총무), 유도성(학술) (2014.9~2015.11)

**지 회**

**서울 · 경인지회**

김재민(회장), 박춘근(총무) (2015.3~2016.2)

**대구 · 경북지회**

김인수(회장), 김영돈(총무) (2015.1~2016.1)

**부산 · 울산 · 경남지회**

정용태(회장), 송영진(총무) (2015.1~2015.12)

**대전 · 충청지회**

이경석(회장), 심재준(총무) (2015.1~2015.12)

**호남지회**

조규용(회장), 이래섭(총무) (2015.3~2016.2)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박정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임영진, 박정윤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임영진, 전신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최창화, 장진우, 박정윤, 오창완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변박장

## 2015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5년 4월 15일(수)에서 4월 18일(토)까지 제주컨벤션 ICC에서 열린 제3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4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1. 송진언 학술상 (전체)

김민수, 김규홍, 이은희, 이영민, 이성훈, 김형동, 김영준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ell cycle regulators predict the recurrence of atypical meningiomas

### 2. 이주걸 학술상 (기초)

피지훈, 최승아, 임상희, 이종엽, 왕규창, 박성혜, 김승기 (서울대 어린이병원)

ID3 contributes to cerebrospinal fluid seeding and poor prognosis in medulloblastoma

### 3. 봉생 김원목기념 학술상 (혈관)

권순찬, 권오기 (울산대병원)

Endovascular Coil Embolization of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s: A Korean Multicenter Study

### 4.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이지혜, 박윤관, 김주한 (고려대 구로병원)

Chronic neck pain in young adults: perspectives on anatomic differences

## 2015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지도전문의 기준 조정

지도전문의 수에서 전공의 1명 신청은 N-4, 전공의 2명은 N-5, 전공의 3명은 N-6을 제한 수 (지도전문의의 정의는 병원협회 규정에 의한다.)

## 이사회

### 2014년 4월 15일(수)\_제주 ICC 303호

- 임원 인준에 관한 건
  - 명예회장: 조병규(2000~2002년도 이사장, 1944.12.11)  
변박장(2002~2004년도 이사장, 1944.11.13)
  - 고 문: 정용구(2012~2014년도 이사장, 1956.2.16)  
최낙원(2013~2014년도 회장, 1952.7.30)
  - 신임이사: 김인수(대구경북지회), 김재민(서울경인지회), 조규용(호남지회), 김성호(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오창완(대한뇌혈관외과학회), 이 언(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최하영(전북대 주임교수), 김동원(계명대 주임교수), 박용석(고신대 주임교수)

## 상임이사회

### 2015년 5월 11일(월)\_학회 사무국 회의실

-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전공의 수련관련 의견서 및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의견서  
내용: 학회 '전공의 수련규정' 중앙, 혈관계 수술 관련 사항  
• 결정사항- TFT 구성하여 수련실내 조사 후 논의 및 결정하기로 함
- 척추분야발전 및 정책연구 TFT 구성(안)  
배경: 대한신경외과학회내 척추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심평원등)과의 관계 업무에 적극 대처하며 지속적인 미래 지향적 정책과 추진 계획등을 연구 및 수렴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학회 미래전략 사업에 적극 반영되게 함이 필요함에 따라 구성하기로 함
- 2016년 한-독 신경외과학대회: 참석 대상 및 Travel Awards 대상자 선정 건
  - Welcome address(3~5 minutes)
  - Oral presentation: 15연제, 7분 발표
  - Keynote: 4연제, 15분
  - 10명 선발하여 Traveling Grant 1,500 EURO
  - 12~2월까지 프로그램 구성
- 학회 저문번호사 확보에 관하여 찬성하며, 총무이사가 업무를 추진하기로 함

### 2015년 7월 13일(월)\_학회 사무국 회의실

- 임원회의 정례화  
• 결정사항: 1년에 4회[주계학회, 춘계학회, 1월(전문기고사)+7월] 임원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 정례화하기로 함
- WFNS학회 Delegate 선정건  
- WFNS Interim Meeting(9월 8~12일) 참석 Delegate 선정 건 (8월10일 Executive Meeting 참석)  
• 결정사항: 이규성 전임이사장(Senior Delegate)과 오창완 학술이사 중심으로 참석자 선정

### 2015년 8월 10일(월)\_학회 사무국 회의실

- 2015년 4월 AACNS 학회 수익금(2억) 중 차기 대회 유치 국가(인도네시아) 지원금 요청에 관하여 1만불(\$10,000) 지원하기로 함
- 특별이사(학술상위원) 안건

- 신설 요청: 주정화 학술상(고려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대상: Young Neurosurgeon, 시기: 2016년부터  
• 결정사항-추후 학술상으로 제정하기로 함
- 3. 이사 선임건에 대하여 조례 개정건(한라병원 이사 선임 요청건)(조례) 이사의 인정기준과 이사의 선출: 회칙 제10조 제5항, 임원선출규정 제7조 제2항과 제3항
  - 1) 대학부속병원: 수련병원으로 인정된 지 5년 경과되고, 주임교수(대표자)가 부교수급 이상인 경우 인정
  - 2) 일반수련병원: 수련병원으로 인정된 지 15년이 경과되고, 과장(대표자)이 부교수급 이상인 경우 인정  
• 결정사항: 조례 개정에 관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 되었음
  - 3) 개정안 대학부속병원 5년, 수련병원 5년안과 대학부속병원 2년, 수련병원 4년안 투표  
• 결정사항: 다수의 의견으로 일반수련병원: 수련병원으로 인정된 지 5년이 경과 되고, 과장(대표자)이부교수급 이상인 경우 인정으로 수정

“일반 수련병원 : 수련병원으로 인정된지 5년이 경과되고”로 수정

### 2015년 9월 19일(토)\_한양 회의실

- 신경초음파연구회 소개 및 분과학회로의 승격을 위한 설명(허철: 신경초음파연구회 회장)  
• 결정사항- 추가적 연구 후 결정하기로 함  
분과학회승인 필요 조건에 대한 근거 및 조례 제정 필요
- 2016년 제1차 한-독 신경외과학술대회 준비에 관하여 학회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함  
- October 19, 2015~November 29, 2015  
All interested participants can submit abstracts via online submission tool at [www.dgnc.de/2016](http://www.dgnc.de/2016)  
- 2016년 1월 한-독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독일) 요청 건
- 학회 소유 현미경 운영안: 개발도상국가 학회 기증하기로 하고 기증방법을 알아보기로 함

## 이사장 보고사항

- 대외 업무
  - 2차 복지부 간담회(IOM 관련)(4월 10일)
  - 세브란스 정위기능 심포지움 참석(5월 16일)
  - 대한신경손상학회 제22차 정기학술대회 참석(5월 30일)
  - 2015 제2차 이사장주재 월례조찬회의 개최(6월 4일)
  - 복지부 기획실장 및 급여과장 간담회(7월 2일): IOM이 진행 관련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 받음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외과 창립 20주년 및 오석전 교수 정년퇴임기념 심포지움 참석(7월 4일)
  - 2015년 제3차 이사장주재 월례조찬회의 개최(7월 7일)
  - 메르스 사태 및 보상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시장, 국회 여, 야당 대표, 부총리,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및 회의 참석
  - 상대가치 위원회 참석 및 제안
  - 중환자 관리 및 감염병 관련 죄담회 참석 (보험 급여 과장과 IOM 및 척추관련 급여 인상에 관하여 논의)
  - 자문위원회 참석(7월 18일)
  - 여의사회와 간담회(7월 22일)

- 대한신경통증학회 제21차 정기학술대회 축사(7월 26일)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참석(9월 12일)
  - 변박장 심평원 상근위원과의 간담회 건: 신경외과학회 이사(보험, 정책, 척추발전위원회, 척추보험, 척추뇌혈관), 척추 분과학회, 두개저학회 및 신경외과의사회, 신경외과병원협의회 회장 참석(10월 1일)
2. 연구재단관련 업무
- 연구재단 관련: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공개하라는 시정 권고조치로 대한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의 일부 공간 사용 허가하기로 함
  - 2016년 신경외과학 연구재단 20주년을 맞아 연구재단 20년사 제작 예정(신임 역사편찬위원장)
3. 유관기관 위원 추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의원에 최창화, 장진우, 박정율, 오창완 추천(4인)
  - 의학회: 한국건강분류 제3기 자문위원회 이경석교수 추천
  - 의학회: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연구기획관리 및 협력연구 평가위원회 장진우, 전신수 교수 추천
  - 의학회: 파견대의원 변경(박정율 총무이사)
  - 심평원파견위원: 고 용, 박 관, 김주승, 노성우, 전신수 위원으로 변경
  - 의학회: 장애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및 회의에 이상구 교수 추천
  - 고용노동부 산재요양전문위원회의 신임위원으로 김태성 교수 추천
  - 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학제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이상형 교수(전 위원) 추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으로 조경근(영등포병원) 회원 추천
  - WFNS Interim Meeting 기간 내 Executive Meeting 참석 Delegates(위임): KNS-이규성, 김범태, KANS-오창완, 박인성
  - 대한의학회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별 세부제안 작성 및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정책위원회 워크샵 참석자 추천 건(8월 17일, 차승헌 교수)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재검토 작업 참여 위원 추천 건(8월 18일, 가천의대 이상구 교수)
  - 의협 '의료질평가 위원회' 사전간담회 개최 참석자 추천 건(8월 20일, 박봉진 교수)
  - 의협 '의료평가 위원회' 위원 추천 건(9월 15일, 권정택 교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급 급여 확대 품목기준에 관한 자문 추천 건(고 용 교수)
  - 심평원 뇌혈관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추천 건(김용배 교수)
  - 대한의학회 분야별 전문평가위원 추천 건(뇌종양-강신혁, 광호신 교수, 소아-문재곤 교수)
  - KDRG 2015 유럽시찰 관련 경비 지출(박현선 교수 참석)

## 임원 보고사항

### 총무이사보고

1. 4월 14~18일 KNS, AACNS, AOSBS학회 진행 보고(KNS관련 내용)
  - 4월 14일 신록회: 13:00 중문 cc(10팀)
  - 전야제: 18:00 중문 cc 2층 대연회장
  - 4월 15일 전일정 KNS 학술대회
    - 이사회: 17:00~18:00 제주 ICC 컨벤션센터 3층 303호
    - KNS Dinner: ICC 탐라5층 780명 등록 Standing 뷔페, 무료 Dr. Volker Seifert 발표(15~20분)
    - 한국의 전통과 발전상 소개(한국의 정신과 문화)
    - 원로초청만찬 19:30 씨에스호텔
  - 4월 16일 14:00 AASNS Executive Meeting
    - 15:00 Dr. Volker Seifert(독일 신경외과학회 회장)와의 회의
2. 2015년 추계학술대회 안내 공지(초록 접수 안내 포함) 및 준비 개시: 대행업체 업무 개시
3. 2016년 한-독 신경외과학술대회건
  - 4월 16일 춘계학술대회기간 독일 신경외과학회 회장(Prof. Volker Seifert)과 회의
  - 참석자: 장진우, 최창화, 박정율, 오창완
  - 개최 장소: Frankfurt, German
  - 개최 시기: 2016년 6월 12~15일
    - (6월 11일 토: President Dinner-KNS 회장단 초청)
  - 내용: 67차 독일 신경외과학술대회 겸 제1차 한-독 Joint Neurosurgical Meeting
  - 6월 12일(일) Opening Ceremony: Welcome Address by KNS 포함
  - 6월 13일(14일) 5분야 Keynote Lectures(15분) by Korean Delegates후에 구연 발표
  - 6월 14~15일 독일신경외과학술대회(14일 Gala Dinner)
    - Travel Awards for Korean participants(young neurosurgeon): 10 Best Abstracts(각 1500 유로)
4. 2차 총무위원회개최(5월 7일): 학회자문변호사 확보안 및 신경외과 보조인력(전문-전담간호사, 호스피탈리스트 등) 현황 조사 필요안 등
5. 임원회의 개최 일정 조정안
6. 네팔지진사고 지원 건: 네팔신경외과학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아 이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함
7. WFNS Interim학회(2015년 9월 8~12일): New early bird registration (7월 20일)
8. 3차 총무위원회 개최(7월 7일): 추계학술대회 준비건(장소, 숙박, 진행 등)
9. 2016년 제1차 한-독 학술대회 준비건(2016년 6월 11일~15일): 안내 공지
10. 대한의학회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사업 관련학회 간담회 참석(6월 12일)
11. 교과서편찬위원회 도서출판지원건: Essentials of Neurosurgical Procedures
12. AACNS 학회 수익금(2억): 대한신경외과학회 재단 경유 입금 예정 (8월 30일까지)



13. 2015년 추계학회 장소인 The K 호텔 사전 답사(7월 31일) 및 제4차 총무 위원회 개최
14. 2015년 추계학술대회 준비건:
  - 7월 31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 학회장 답사
  - 학술대회 준비 보고:
    - 1) 제약협회 지원금 건: 2015년 추계학술대회에는 신청하지 않기로 함
    - 2) 후원요청서 발급: 7월 25일 총 150업체(기존 95개)
    - 3) 주 후원업체 대표 면담: 5기관(8월 5일까지 완료)
    - 4) 숙박 안내: 전 회원에게 7월 20일 발송(8월 20일 1차 접수마감): 7월말 기준 70 room 예약 완료
    - 5) 교통: 셔틀 준비
    - 6) 친선스포츠타대회: 골프 및 테니스(10월 15일 목요일)
    - 7) 분과학회 조찬회의 장소 준비 완료
15. 2016년 제1차 한-독 신경외과학술대회 준비 및 공고: 6월 13일(월)~15일(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 독일 회장 요청으로 2016년 1월 양국 준비위원회 모임(독일)
16.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척추) 개정 관련 간담회 참석 예정(8월 12일)
17. 학회 자문변호사 위촉 예정(이사장 추천)
18. 추계학술대회 소식지 발간을 위한 회원 동정 협조문(6월 30일): 기한-8월 30일
19. WFNS 회비 납입(2015년): KNS \$12 1,000명분, KANS \$12 100명분 및 수수료 \$20 총 \$13,220 납입
20. 학회 고문 변호사 섭외 및 위촉 예정
21. 심평원 업무 담당자 초청 발송(9월 10일): 학술대회, 워크숍, 런던, 만찬 등
22. 2016~2017년 학회 회장선출을 위한 지회 추천 요청: 경기-강원-제주 지회(9월 9일)
23. 의학회주관 장애판정평가기준안 선정 최종 회의 참석(8월 12일): 염진영 - 이상구 위촉
24. 전국수술부위 감염감시체계운영간담회 참석(8월 21일)
25. 2016년 추계학술대회 장소 섭외: 부산 벡스코 예약 완료 (2016년 4월 14~16일)
26. 기부금위원회에 3~4명의 부위원장 선출 요청 및 간담회 섭외
27. 분기 감사간: 9월 10일까지 업무 내용을 감사에게 보내고 감사 진행 후 추계학술대회 상임이사회에서 보고(업무&회무 보고-김무성 감사, 재무-김은상 감사)
28. 학술대회 준비 보고
  - 1) 후원 업체 현황: 9월 18일 현재 50개 업체 확인(주요 후원 업체 제외)
  - 2) 숙박 호텔 현황: K호텔 외 3개 확보, 이동: 호텔 셔틀버스 이용
  - 3) 목요일 스케줄: 운동(오전: 테니스 및 골프), Practical Workshops (1~4시) 임원회의 오후 3시(별관 3층 금강B), 이사회 오후 4시 (별관 1층 한강홀), Welcome Reception 6시(3층 크리스탈볼룸 야외), 원로 만찬 오후 7시
  - 4) 금요일 주요 스케줄: 총회(3시~3시 30분) 및 만찬(6시 30분~)
  - 5) 분과학회 조찬회의: 금요일 오전(각 위원회는 별도의 조찬회의 없음.): 토요일은 Breakfast Seminars(뇌혈관, 말초, 노인) 회의실 사용 신청 (9월 25일 마감)
  - 6) 9월 9일부터 등록 시작(학회 홈페이지 www.neurosurgery.or.kr)
  - 7) 초청연자 의견관련

## 학술이사보고

1. 2015년 추계학술대회 결과보고(with AACNS, AOSBS)
  - 1) 공식 보고서: 6월에 수령 예정(KENES)포스터 266; 국내: 해외= 362:388)
  - 2) KNS program 문제점:
    - ① 예년에 비하여 국내 등록자 200여명 감소
    - ② 오전 첫 프로그램 참석률 저조(30~100명), 주간에는 200~300명으로 참석자 증가
    - ③ EDU-1 세션 준비 미비: KENES에서 좌장에게 발표 내용 사전 전달이 되지 않았으며, Q&A 진행이 미숙하였음
    - ④ 일부 세션 연자 불참: 결과 보고 체계 미비로 정확한 보고 받지 못함
    - ⑤ 진행에 KNS 학술 위원들 참여가 적었음
  - 3) 준비 과정 정리: 별첨 자료
5. 2015 추계학술대회 준비(서울, The K Hotel; 10월 15일(목)~10월 18일(일))
  - \*제3차 학술위원회의 (사무국, 5월 7일 5PM)
  - 1) 준비 일정
    - \*5월말까지 학술위원들로부터 학회 "theme" 의견수렴하기로 함-수련과 관련된 테마 고려 중
    - \*전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주제 또는 학술 프로그램 고려해 보기로 함
    - ① 초록 접수: 5월 18일~6월 30일
      - 전 회원 공지 이-메일 발송함(5월 4일)
    - ② 5월 초, 분과학회 심포지움 구성안/해외 초청 연자 요청
      - 초록 심사위원: 추계학회 때 추천된 분들에게 요청
    - ③ 7월 중순, 초록 심사 완료
    - ④ 7월 말, 프로그램 완성 및 공지
    - ⑤ 8~9월 프로그램 수정
  - 2) Symposium
    - 군진의학 session(담당: 학술위원장)
    - "Robotics", "미래 공학", "신기술/신장비" 관련 session(담당: 이상구 학술위원)
    - 기타 의견 있으면 제안 받기로 함(장기기증 관련주제는 다음 학회에 서 고려)
  - 3) Scientific session
    - Flash presentation: 제출된 초록 숫자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 English session: 유지 하되 시간이나 숫자 줄이는 방안 고려하기로 함
  - 4) 개원의 program
    - 개원의협의회에 요청해서 6월말까지 program 확정 (담당: 조보영 학술위원)
  - 5) 분과학회에 요청 및 문의(연제, program, 좌장): 담당-해당 학술위원
    - Practical workshop
    - Luncheon seminar
    - Special lecture 추천받기
  - 6) 학술 위원 현장 업무 분담: 7월 4차 모임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7) PCO 각 발표장 현장 요원이 참석자 수 등 monitor 하도록
    - > 각 프로그램별 호응도 분석
    - 기타 일정
6. 한독 Joint 학회: 2016년 6월 12~15일, Frankfurt(13일 월요일 KNS-DGNC joint meeting 하루 일정)
  - 1) Seifert 회장님과 협의 내용

- ① Welcome address(3~5 minutes)
- ② Oral presentation: 15연제, 7분 발표
- ③ Keynote: 4연제, 15분
- ④ 10명 선발하여 Traveling Grant 1,500EURO
- ⑤ 12~2월까지 프로그램 구성
- 2) 연제 선정 방법(학술위원회 의견)
  - ① 각 분과학회에서 4연제씩 추천받아 선정(2배수 추천받아 학술위원회에서 선정)
  - ② 2015 추계 학회 연제중 선정: Plenary 연제 선정 방법 준용
  - ③ 2016 춘계학회 연제중 선정: 완료 시기가 늦을 수 있음
- 3) 대한신경외과학회 제4차 학술위원회의 공지
  - 일시: 2015년 7월 14일 오후 6시
  - 장소: 대한신경외과학회 사무실
  - PCO 참석
- 7. 추계학회 해외 초청 연자(5~6명)
  - 1) 이사장, 회장 추천
  - 2) 분과학회 추천
    - ① 뇌종양학회: Ennio Antonio MD, PhD(Brigham & Women's Hosp.)
    - ② 뇌혈관외과: Hiroyuki Nakase
    - ③ 외상학회: 일본 Trauma Guideline or Databank 위원장
  - 3) 2014년 초청 고려: Neurosurgery 편집장- Nelson M. Oyesiku(Emory Univ. Pituitary tumor)
    - 2013: Asia 2, USA-EU-Australia 3
    - 2014: Asia 3, USA-EU-Australia 2
    - 비용 감안: \$3,000~6,000
- 8. 명사초청강연: 연자 추천 → 슈틸리케 감독
- 9. 심포지움: 2건 진행
  - 1) 군진의학: 미8군 파견 군의관 포함하여, 국내/미국 군진의학에서의 신경외과 역할
  - 2) 의료산업의 현황과 전망: Medical Robot 등, 한양대 김영수 교수님 등
- 10. Workshop: 3건 접수(IOM, 뇌혈관외과 video workshop, 신경통증 Epiduroscope)
- 11. 초록 접수: 1차, 5월 18일~6월 30일 → 7월 12일 까지 연장함

연도	국문		영문		포스터	총계
	구연	구연/포스터	구연	구연/포스터		
2014	149	77	59	21	262	568
2015 07~06	112	89	52	27	186	466

- 12. 한독 Joint 학회 연제: Seifert 수정 의견(6월 23일)
  - 구연(10분 발표; 2분 Q&A 포함): 15 → 30연제로 증가
  - Key Note(20분 발표): 4 연제 증가 예정
  - Poster/e-poster 추가
  - Resident Traveling Grant 10명 선정

### 13. 학술대회 주제(Theme of Annual Meeting)

연도 및 춘/추계	주제
2015년 추계	Legacy&Current Trends in KNS*
2016년 춘계	Mission&Vision of KNS
2016년 추계	For the Next Generations of KNS

\*2015년 추계: 중요 분과학회(종양, 혈관, 척추 등) 별로, 간략한 역사 및 최근 5~10년간 환자의 변화, 추세 및 최근 발전의 방향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

### 14. 추계학회 준비 사항:

- 1) 10월 15일(목요일) 오후 workshop: 5건 준비 중
  - ① 정위기능 IOM ② 신경통증- Epiduroscopic Procedures
  - ③ 초음파학회 ④ 지도전문의 교육 ⑤ 뇌혈관외과학회

\*Live surgery도 고려 중

- 2) 10월 16~17일(금, 토요일)
  - ① 초록(562건 접수) 심사 중. 금주 말 전체 프로그램 Draft 구성 계획임
  - ② 유명인사 강연: 울리 슈틸리케(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 ③ 'Main Theme Session': 금년도 주제에 관한 세션
  - ④ Symposium: Medical Robotics & Industry in Neurosurgery
  - ⑤ 해외연자 초청: 미국 연자 3명 예정(뇌종양, 뇌혈관, 신경손상), 아시아 1명 예상(회장님 추천)
- 3) 특강- 수련교육 관련, 보험 업무 관련 등
  - 10월 18일(일) 개원의 프로그램: 구성 완료
- 4) 기타 사항: 각 프로그램 별로 PCO 요원이 참석자를 파악하여, 차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금년 추계 Luncheon Seminar가 13개 신청되었음(11개 분과 학회, 여의사회, 간호사) 타 학회의 경우, 참석자수가 너무 소수가 되는 관계로, 이미 이러한 '세미나 다수 병행 진행'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함

\*Breakfast Seminar 운영 예정(안)

\*Workshop에서 Live Surgery Course 시도: 이미 대부분의 외과 학회에서 국내 혹은 국제 Live surgery course를 시행하고 있음. 금년 추계학회에서 소규모로 시행하여 실용성을 검토할 예정임 비용이 소요됨

### 15. 한독학회 초록: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11월까지 접수)

### 16. 추계학회 준비 사항(프로그램 Overview 첨부)

- 10월 15일(목요일) 오후 workshop: 6건 준비 중
  - ① 지도전문의 교육, 정위기능, 신경통증, 신경초음파학회, 편집위원회, 뇌혈관외과
  - ② 뇌혈관외과학회: 전남대, 삼성의료원 수술장-학회장 연결하는 Live Surgery 예정
- 10월 16~17일(금, 토요일)
  - ① 초록(562건 접수) 심사완료(8월 18일)하여 Plenary 연제 정하고, 각 세션에 배정함.
  - ② 유명인사 강연: 울리 슈틸리케(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확정
  - ③ 'Main Theme Session': KNS 역사, 분과학회 변천사, 통계 등 3개 주제로 준비

- ④ 정책강좌: 권덕철 의료정책실장
- ⑤ Luncheon Seminar에 업체 주관 session 3~4개 준비하고 있음
- 10월 18일(일요일) 개원의 프로그램: 구성 완료

## 고시이사보고

1. 4월 24~25일 고시위원회 워크샵 개최 보고
  - 1) 분과별 출제 문항에 대한 개선 방향(각 10분씩)
    - 중앙 충남대 김선환
    - 혈관 울산대 이관성 - 추후에 하기로 함.
    - 소아 일산병원 양국희
    - 기능/정위 가톨릭대 김인영
    - 척추 순천향대 장재칠
    - 외상/말초 인하대 현동근
    - 해부 동아대 박성현
    - 총론 고려대 김주한
- (의견들)
  - 고시 문제의 난이도 조절 필요-5년 연속 100% 합격은 문제
  -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내고 새로운 문제를 많이 개발해야 할 듯
  - 이번 시험에도 들어났듯 기출 문제와 기출 변형에는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사진 문제의 경우 차이가 있음. 따라서 난이도 조절은 사진 문제와 신규 문항으로 해야 함
  - 수련교육위원회와의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2) 고시위원회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의 수준 제시
  - 신경외과의 진료 영역의 확대 혹은 유지와 관련된 문항
  - 학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과의 연계성 및 수련의 평가와의 연계성
2. 문제 출제 의뢰(문제출제 위원 159명)
3. 7월 문제은행 정리 작업(자율 시행) 7월 9~10일 / 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4. 2016년부터 고시위원이 문제출제위원(7월, 11월)과 문제선택위원(1월)으로 이분화
5. 본 학회 전문의 고시 논문접수 요강

## 수련교육이사보고

1. 전공의 중간평가 결과 보고(4월 4일 시행)
  - 전공의 중간평가 응시자: 197명(각병원의 2~3년차)
  - 문항수: 60문항(신경해부학, 신경학적검사, 영상의학검사, 환자관리)
  - 시험장소: 전국 9개의 장소(서울, 부산, 전라, 충청, 대구, 경기)
  - 결과통보: 개인과 각 수련병원 과장님께 통보
2. 수련실태조사 준비사항
  - 1) 발전 방향
  - 2) 전공의 중간평가
    -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변경 고려
  - 3) 대수술 및 주요 수술례 정의 재분류
    - 전공의 수첩 온라인 준비사항
    - 신경외과 전공의 추가모집- 2지망제도에 대하여 병원협회에 승인요청 예정
    -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의견 및 대한뇌혈관외과학회의견
- 4) TFT 구성하여 수련실태 조사 후 논의 및 결정하기로 함

- 5) 아울러 신경외과 학회의 연차별 교과과정의 교육목표에 “신경계 혈관조영술 및 혈관내 수술의 술기 습득” 항목 추가에 대하여 수련실태 조사후 확인하기로 함
  -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4/25~26, 양평블룸비스타)
  - 지도 전문의 교육(2015년 5월 9일 등록인원 총 167명)
3. 2015년도 병원심사 사전 제출 서류 점검작업
  - 일시 및 장소: 6월 2~3일, 학회사무국
  - 작업 내용: 제출된 각 수련병원 수술장부 심사
4. 2015년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심사일정
  - 심사인원: 총 72명
  - 심사일정: 7월 6일~31일
5. 2015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신경외과 의견
  - \*신경외과(지도전문의 수 기준: N-3, 전공의 1인은 N-3, 2인은 N-4, 3인은 N-5) 학회의견
  - 1) 정원 감원 기간 중 증원 불가
  - 2) 학회 내규에 따른 하위성적 우선 조정
  - 3) 수련병원 (법적)인정기준
6. 지도전문의 교육: 제55차 추계학술대회 때 워크샵 실시 (10월 15일 목, 오전 10~오후 1시 예정)
7. 대한병원협회 회의 참석 예정: 수련교육심판위원회 개최 관련 지도전문의 기준 조정에 대한 회의
  - 일시: 8월 27일(목)
  - 장소: 대한병원협회(13층) 소회의실 (N수 상황 조정 시 지도전문의 부족 병원 초래 가능 및 지도 전문의에 대한 정의 확립 필요)
  - 좀 더 정확하게 수련실태를 반영하는 기준 마련 시급 및 결정사항 조속 발표 당부
8.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심판위원회 협의 사항 전달(9월 3일)
  - 현행 N-3에서 N-4로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 (2017년 정원책정부터)

전공의 1인일 경우 N-4, 2인일 경우 N-5, 3인일 경우 N-6 적용

- (fellow의 지도전문의 인정 불가 요청은 병원신임위원회 정원책정 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불인정함)
- 9. 2016년 신입 전공의 책정에 관한 건(학회안)
  - 95명 정원으로 확정: 증원 불가, “대수술×수련실태조사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 6개 병원: minimal requirement 부족으로 탈락
  - 전공의 1명 뽑는 병원 65개 병원 선정
  - 전공의 2명 신청 20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 선정
  - 전공의 3명 신청 6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선정
- 10. 2017년도 신입 전공의는 6명 추가 감축(보건복지부 안)

## 기획이사보고

1.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회신 건(의협 제안 1)
  - 제 7조: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위원 대상을 4개로 구분하였고, 가능한 공급자 대표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예: 수요 3 공급 5 공무원 3 보건전문가 3

## 제안 2)

- 1) 의료의 질 평가 항목에서 '질 지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의견은 없습니다.
- 2) 환자 안전 관련: 신경외과 환자는 중증도가 높고 수술위험도가 높으므로 수술 사망률, 항생제 사용률 등은 그 자체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하지만, 환자안전을 위해 수술 중 감시장치(IOM)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듯 합니다.
- 4) 수련교육 관련;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 제한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 비디오 콘텐츠(학회주관)의 개발과 이를 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이 어떨지 사료됩니다.

## 제안 3)

이 제정 안의 목표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므로 평가 영역의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 수련과 연구개발은 대학, 대형 병원이 잘 되어 있고, 또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와는 조금은 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가중치를 줄이고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성의 가중치를 늘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보험이사보고

### 1. 심평원

- NAVIEN 관련 의견요청 회신
- 중재적시술시 사용되는 색전적출용 관련 학회 의견요청 회신
- 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안건 관련 의견요청 회신
-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 의견 요청 회신
-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에 다량 사용한 흡수성 치료재료 인정여부 관련 의견요청 회신
-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관련 의견요청 회신
- 2015년 진료평가위원회회의개최(박준범 참석)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워크숍(고 용, 노성우 참석)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전문가 자문회의(정천기, 조정기 참석)
- KDRG버전 4.0 개정관련 '최소건수 미충족' 질병군 임상전문가 조정회의 (진동규 참석)
- 초음파 급여방안 협의체 구성 운영 관련 전문가 추천의뢰 회신 (최순규 추천)
- 나-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수가 산정 관련 전문가 추천의뢰 및 의견요청 회신(이정일, 홍석호 추천)
- 초음파 개선방안 소협의체 회의 참석요청 및 초음파 자문협의체 인력풀 인력 증원요청(최순규, 윤수한, 이상형)

### 2. 의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항목관련 학회 의견조회 회신
- 희귀질환 선별관련 의견요청 회신
- 급여기준 전면개편 작업 관련 의견요청 회신
- 행위재분류 최우선 대상행위 보완작업 요청 회신
- 급여기준 고시 및수가 고시정비 관련 행위정의 등 검토요청 회신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추가선정에 대한 의견 요청 회신
- 전기자극기분석및프로그램설정 행위재분류 관련 의견요청 회신
- 국가건강정보포털 희귀난치성질환 콘텐츠 재심사 회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 (14-보험-122-1) '척수 경막외 증양 및 병소절제술' 관련 학회 의견에 대한 문의사항
-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연구관련 제6차 학회간담회(박현선 참석)
- 의료행위 분류체계 표준화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건(고 용 추천)
-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및 의료행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회신 (박봉진, 고 용 추천)
- 희귀난치성질환 연구관련 자문위원회전문가 추천의뢰 회신(조병문 추천)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전문가 자문회의(장진우, 허 룡 참석)
- 제88차 상대가치위원회(RUC)(박봉진 참석)
- 제23차 의료행위심의위원회(고 용 참석)
- 「대뇌피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 급여기준」관련 전문가 추천 및 회의 (유도성 참석)
- 제22차 의료행위심의위원회 회의(고 용 참석)

### 3. 보건복지부

-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및 위촉 알림(고 용, 김주승, 노성우, 박 관, 전신수 추천)

### 4. 병협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 추천요청 회신(조경근 추천)
-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학회 의견 요청 관련 회신

###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척추의 비수술적요법에 대한 관련학회 의견요청 회신

### 6.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제7차 개정내용 중 뇌경색 세분화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회신

## 진료심의이사보고

### 1. 회의 결과보고 (4월 3일)

- 1) 진료자문 의의 및 근거-① 대한의사협회 규정에 의함 ② 본 학회 규정 에 의함
  - 2) 진료자문 결과 - 신경외과학회의 공식의견 인정유무에 대해서 규정 검토 후 재 논의하기로 함
  - 3) 진료자문에 대한 회신 시기 검토: 회신은 3개월 이내 회신하도록 하며, 심의를 못 할 경우 학회로 반송(이해관계 시 제외) 복잡한 사안-소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4) 자문료의 일부(5~10% 이내)는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함.
2. 대한의사협회에서 온 "후유장애진단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의료기록 과 영상 등으로 장애진단을 정확히 평가 내릴 수 있는지 관련 의견조회 건"
- 결정사항: 면밀히 검토하여 답하기로 함

## 법제윤리이사보고

### 1.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답변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조회
- 간병비 부담이나 실제 환자가 많은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담보할 만한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이선행되고, 정부나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방 안이 모색되어 환자나 의료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스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만든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확대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료됨

## 2. 수술동시에 관한 설명의무 명문화

(반대의견)

- 1) 설명의 내용과 형식은 각 사안마다 전문적 소양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2) 의료 행위 일체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친 과잉규제에 해당함
- 3)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 의료분쟁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의료정책이사보고

### 1. 의협

-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검토요청 회신
- 의료기관 전원규정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요청 회신
- 추가 사항: 장기 환자의 치료비 조정에 관하여 시행이 예정 등에 대하여 추가 사항을 문의
-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및 임상전문가 위원추천 요청 회신(박현선, 김창현, 진동규 추천)
- 도수의학대책위원회 회의(김도형 참석)
- 마취수준에 따른 환자 안전 대책 마련 관련 회의(이중오 참석)
- 2015년 KDRG 연구관련 유럽 출장 현재 내과 5명, 등 전체 15명 내외가 참석 예상. 유럽 DRG 제도에 대한 견학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방법론 논의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 의협의 연구과제 수행의 일원 신경외과의 MDC01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중증도 모델을 만들어 simulation 하는 작업을 수행 예정임(박현선 참가)

### 2. 심평원

- KDRG 버전 4.0 개정관련 최소건수 미충족 질병군 의견요청 회신
- KDRG 버전 4.0 개정을 위한 '자원소모 유사성 분석결과' 관련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회신
- 2015년 제2차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회신  
: 본회의에서 박현선 정책이사가 환자 분류체계 실무 검토위 2기 위원장으로 선출됨
- KDRG 버전4.0 개정을 위한 '질병군 명칭' 관련 임상전문가(신경외과) 서면자문 요청 회신
- 환자분류체계 중증도 반영 관련 조사 건
- 2015년 제1차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박현선 참석)
- 진전마취 관련 회의(박현선 참석)
-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및 임상전문가 위원 위촉(박현선, 김창현, 진동규 유지)
- 상대가치점수 개정 직접비용 및 행위 재분류 관련 학회에서 간담회 (박현선 참석)

### 3. 복지부

-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학회 의견조회 회신

### 4. 대한임상보험의학회

-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정기학술대회(5월 10일)(박현선, 노성우 참석)

### 5. 대한의학회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관련 조사 (1, 2차 회의: 박현선 참석)
- 의료장비별 안전 및 품질 관리 필요도 및 국민 건강 관련 콘텐츠 관련(분과 학회 협의중임)
-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 수요 조사(현재 조사 진행 중)

###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문제해결형 공익적 임상연구 사전 설명회 참석 (향후 분과학회로부터 의료정책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하여 학회 차원의 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음)

## 특별이사(발전기금관리위원회)보고

### 1. 2차 발전기금위원회 회의

- 신경외과 대표 질환별 안내 리플릿 사업의 지속을 홍보위원회에 요청 개원하신 분들과 봉직의 분들과 계속 요청해야 함
- 발전기금을 이용한 정책연구비 지원 사업
  - 1) 사업 목적: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 제안을 받아 발전기금의 목적 달성을 달성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
  - 2) 정책연구 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구상
  - 3)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는 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선정기준에 맞추어 순위를 정한 후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승인을 받을 예정
  - 4) 구체적인 신청 주제, 연 지원액, 연 지원건수, 연구비 관리규정, 선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세부 운영규칙에 따르고, 연구비의 지급과 관리는 연구재단에 일임함
  - 5) 상임이사회 승인 후 2015년 가을학회에서 공고하고 2016년부터 시행 예정. 첫째는 과제당 천만원 2~3개 과제를 선정을 고려하기로 함
  - 6)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연구비운용규정 (초안별첨)

### 2. 3차 발전기금위원회 회의

- 신경외과 학회의 경쟁력 제고가 주목적
- 미래 비전을 위한 전략적 재원 마련의 취지, 역량 있는 인재 발굴 및 투자
- 개원가 부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 매력적인 정책이나 주제가 분명해야 모금이 더욱 활성화 될 것, 일반 모금보다 목적 성금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 자발적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이 급선무
- 1) 정책연구비
  - 배정액 상향 조정: 연간 2000만원, 최대 2개 과제 선정 연구기간 1~3년 이내
  - 연구 수행 후 결과물 제출 필수, 홈페이지 게시, 학회에서 구연발표 조건
- 2) 홍보용 리플렛 개원가 배포
  - 각 기관별로 새로 개원하는 병/의원: 각 학회로 공지하는 시스템 구축
  - 공지 받은 학회에서는 병/의원 로고 삽입된 리플렛 무료 배포
  - 학회 명의 축하 화환 함께 전달하는 안 검토
- 3) 모금 활성화 방안
  - 과감한 아이디어와 파격적 주제로 모금의 동기유발 및 학회 집행부와 교액 기부자 모임 추진
  - 개원가 배려하는 정책 필요

## 특별이사(학술상)보고

1. 2015년 춘계 학술상 선정권 및 추가적 선정 기준 제안 및 설명
2. 6개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관련 공지 함

## 특별이사(신경외과명칭개정)보고

1. 논의 않은 개정 찬성론(21/40), 무응답자는 반대 의견이 많을 가능성이 있음
2. 합축성 있는 마땅한 대안 부재
3. 신경외과 명칭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국민홍보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4. 복잡한 행정적 절차: 대한의학협회 이사회, 국회보건복지위, 국회본회의

## 별정직(학술지편집)보고

1. 대한신경외과학회지(이하 학회지) Impact Factor증진을 위하여 SCIE급 이상의 저널에 당해 연도의 IF에 기여하는 학회지 2년간의 논문을 인용하면 건 수당 10만원씩의 부상을 시상함
2. 학술상 심사 시 최근 3년의 학회지 논문을 인용 시 횟수별로 가산점을 부여
3. 임연학술상은 최근 3년간의 학회지 게재 논문 중 가장 많이 피인용된 논문의 교신 저자로 선정함
4. 2016년도부터 bimonthly로 전환 출간 예정
5. 금년 1월부터 case report 제출 시 출판 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됨을 공지한 후 투고를 받고 있음

## 특별위원회(미래위원회)보고

- 대한신경외과학회 미션, 비전, 핵심가치 선포 준비 현황 보고

## 특별위원회(재정위원회)보고

- 발전기금 출연현황 보고  
잔액합계 : 82,680,000원

## 특별위원회(척추분야발전위원회)보고

〈척추영역: 현황 및 문제점〉

1. 심평원문제
  - 1) 척추상근자문의 진입문제-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며,
  - 2) 심사실명제 문제-이를 진행해야 많은 부분이 해결될 듯함
  - 3) 삭감문제-삭감율이 높음: 20~30%가 삭감이 된다고 함  
6주의 치료기간 등 보존적 치료기간 너무 경직
2. 학회차원문제
  - 1) 학회 수련규정상 척추수술의 major 비율이 너무 낮음
  - 2) 심평원의 신경외과 자문의가 학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 등
3. 한방광고 문제점
4. 기타
  - 기자회견 여부, 척추발전 TFT 구성 등
  - 기자들과 심평원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는 것은 어떤가 얘기를 하였음
  - 심평원 척추분야 상근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함

## 경희대병원

###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제2회 창조병원경영대상' 영예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이 지난 22일 '제2회 창조병원경영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특별시병원회와 지멘스가 공동 제정한 창조병원경영대상은 국민보건으로 발전과 병원경영을 혁신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병원 CEO를 선정해 수여한다.

서울시병원회장은 "임영진 의무부총장은 '병원 구성원이 발전의 원동력이자 재산'이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해 온 창조경영인이자 어려운 상황에도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병원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 순천향대 부천병원

### 1) 터키 신경과 Dr Ayca, 신경외과 Dr Ali 연수

개원 이래 다년간 외국 의사들의 신경외과 연수 교육을 담당해왔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실에 터키 신경과 Dr Ayca와 신경외과 Dr Ali가 연수를 마쳤다. 이들은 먼저 연수를 진행한 터키 Dr. Mervic의 후임 연수 의사들로서 연수기간 동안 vascular 및 endovascular neurosurgery에 대해 집중적인 연수를 진행하였다.



### 2) 전공의 1년차 환영식

일시 및 장소: 3월 23일, 주미정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신경외과 전공의 1년차 이현영 선생의 입국 축하 자리를 주미정 한정식에서 가졌다.

### 3) 캄보디아 연수 의사 근무종료

일시 및 장소: 3월 24일

지난 1년간 캄보디아 연수 의사인 Dr. Se Rady가 1년간의 연수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Dr. Se Rady는 1년동안 general neurosurgery를 비롯하여, vascular 및 endovascular neurosurgery에 대해 연수를 진행하였다.



### 4) 동문연수강좌 및 신임 전공의 1년차 입국식

일시 및 장소: 5월 30일, 용인 대우연수원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입국식 및 개원의 연수 강좌가 용인의 대우연수원 개최되었다. 개원의를 위한 동문 연수 강좌와 이어서 교실원 및 동문들에게 신임 1년차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입국식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강좌에는 박석규 교수님의 연수보고와 순천향대 서울병원 비뇨기과 김재현 교수님의 논문 작성 노하우를 듣는 자리가 있었으며 향후 전공의 근무 80시간을 대비하는 윤석만 교수님의 강의를 마련되었다. 또한 동문 선배님 중 개원가의 생활에 대한 진솔한 발표가 있었고, 성공적인 연구비 획득에 관해 분당 차병원 한인보 교수님과 중동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이슬람 문화의 이해에 대한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1) 김익현 조교수가 2015년 8월부터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System Biology Laboratory에서 1년 6개월간의 연수를 시작하였다.

2) 2015년 5월 16일(토)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58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Current Issues and Up-date of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를 주제로 국내 유명 교수님들의 강리가 있었으며, 특히, 일본 Nara Medical Center의 Hidehiro Hi-rabayashi 선생님의 Baclofen Pump 치료경험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세백희 동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운동장애질환의 치료, 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 신경조절 등 정위기능신경외과 분야에 대해 열띤 토론 및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

3) 2015년 8월 29일(토) 강남세브란스 척추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척추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임상 및 기초 연구를 비롯한 모든 척추과학 발전에서 최고의 중심 병원이 되겠다는 목표하에 척추신경외과, 척추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가 협동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온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국내외 여러 초청 연자들과 함께 척추질환 치료의 원칙과 치료철학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북경대학의 Nan Li 선생님의 Navigation을 이용한 척추 수술에 대한 강의에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1. 신경외과, 청송 심포지움 개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경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무성)에서는 6월 13일 (토) 임재관 11층 강당에서 청송 심재홍 교수님의 9주기 추모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통증과 정위기능수술'을 기념하여 2013년 Spiegel & Wycis상 수상자이신 정상섭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전임 회장을 비롯하여 정위기능 수술에 명망 높으신 연자의 강의로 꾸며졌다.



**2. 신경외과, 미세혈관문합술 훈련과정 개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경외과학교실에서는 7월 17일(금)부터 18일(토) 까지 의과대학 3층 실습실에서 국내 뇌혈관수술의 명의를 모시고 '제5회 미세 혈관문합술 훈련과정(Microvascular LAW for neurosurgeons)'을 개최하였다.

**한양대병원**

**- 오석전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심포지움**

일시 : 2015년 7월 4일  
장소 : 한양대병원 HIT빌딩

**가톨릭대병원**

2015년 교실 전공의 교육, 심포지움 개최

**1. 제 3회 신경외과학교실 "전공의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성료**

일 시: 2015년 5월 9일(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지하세미나실

**2. 제 4회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척추심포지움 개최**

일 시: 2015년 10월 31일(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대강당

**3. 2016년도 9th Neurosurgery Update 개최 예정**

일 시: 2016년 2월 13일(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대강당



### 대한신경손상학회

#### • 조경석 교수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손상학회 회장 취임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조경석 교수가 제4대 Asia-Oceania Neurotrauma Society 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2008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처음 학회 창설을 주관한 조경석 교수는 향후 2년 임기 동안 추진 과제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 도상국 젊은 신경외과 의사를 한국에 초빙하여 일정 기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고, 2016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손상학회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세계신경손상학회 국내 유치 등 3가지를 취임 과제로 설정하였다. 조경석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09년부터 세계신경외과학회(WFNS) 신경손상위원회(Neu-rotrauma Committee) member로 활동하고 있다.

###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1) 제 3차 뇌혈관내수술 인증사업

일시: 2015년 3월 20일~6월 20일

뇌혈관내수술의 질향상과 표준화를 목표로 시작된 뇌혈관내수술 인증사업이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2회의 인증심사를 거치면서 그 동안 137명의 인증의와 57개소의 인증기관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인증사업을 통하여 13명의 인증의와 6개소의 인증기관을 새롭게 인증하였다. 또한 기존 인증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인증사업을 실시하여 33명의 기존인증의에 대하여 인증을 갱신하였고, 기존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사업을 통해 10개소의 인증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 2) 뇌혈관내수술학회 연보 제 2호 발행

일시: 2015년 7월

작년에 이어 올해 제 2호 연보가 발행되었다. 제 1호 연보를 통하여 뇌혈관내수술학회의 위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제 2호 연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보를 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범태 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전향적인 학술 활동과 기록보존 중시정책,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평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능동적인 전문학술 단체로서의 학회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 3) 뇌혈관내수술학회-신경중재치료학회 합동학술집담회

일시: 2015년 5월 11일

장소: 서울성모병원 대학본관 1층

지난 3월 뇌혈관내수술학회에서 주관하여 개최된 합동모임에 이어 제 2차 합동 집담회가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시되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학회에 준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호평을 받았던 1회 모임에 힘입어 제 2회 합동 집담회는 좀더 많은 증례발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초록 등록 없이 현장 등록 및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합동증례발표의 주관은 신경중재치료학회에서 진행하였다.

### 대한말초신경학회



#### 대한말초신경학회지 (The Nerve) 논문 모집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말초신경학회(<http://www.kpns.or.kr>)에서 학회지 원고모집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발간되는 대한말초신경학회지의 이름은 'The Nerve'입니다. The Nerve는 온라인 (e-publication)으로만 발간되는 잡지이며 2015년 10월 15일 초판 발행 예정입니다.

The Nerve는 말초신경분야에만 주제를 국한하지 않고 신경계 전반과 신경외과 영역의 기초 및 임상 논문, 증례보고, 종설, 수술 술기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The nerve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초기에 PMC/PubMed/Science-Central 등재를 목표로 하며 제반 사항이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지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제반 내용 및 논문 투고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한말초신경학회의 분과학회지로서 전공의 고시와 관련하여서 e-pub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타 분과학회지와 동일하게 인정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대한신경외과학회 14-고사-033). 게재된 논문은 XML, PDF 형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대한말초신경학회지(The Nerve)에서 논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The Nerve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thenerve.net>이며 논문접수는 [Nerve.KPNS@gmail.com](mailto:Nerve.KPNS@gmail.com)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제 규정을 살펴보고 많은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논문 제출시에 투고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보내실 때 Author check list, Copyright transfer agreement(conflict of interest: COI 포함) 공개서식을 확인하시고 같이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발간되는 대한말초신경학회지 (The nerve)의 1권 1호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015년 9월 10일까지 원고를 접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양희진/간행이사 최우진 올림

교과서편찬위원회

- 대한신경외과학회 발행 교과서 "Essentials of Neurosurgical Procedures and Operations" 영문발행, 회원 및 세계신경외과학회(WFNS) 교육용

인천 부천 지역 모임 - 032 신경외과

1) 신임회장 취임 (2015년 1월)

회장-김범태  
총무-정제훈  
간사-위유경

2) 5월 집담회 성료

- 일시: 2015년 5월 4일 오후 6시  
- 장소: 인천성모병원 마리아홀  
- 참석자: 36명

Case 발표

병원	제목	내용
길병원	Spondylitis patients after vertebroplasty for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척추성형술 이후에, 병발된 척추염 환자 경험에 대한 발표와 이환자에서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시기, 치료방법, 수술방법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인하대 병원	Differential diagnosis for low back pain with radiating leg pain patients: 2 case reports	Lt femur neck AVN, External iliac artery occlusion으로 인해 발생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순천향대 병원	SAH with thrombosed PICA Aneurysm	Thrombosed PICA aneurysm 환자치료에서 Clipping이 어려워 wrapping 한 이후에, Re-rupture 된 증례보고
인천성모병원	3 case report of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 after Cervical spine operation	수술후 발생한 post-operative bleeding case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증례 보고,
국제성모병원	Rt temporal gloma	Neurological deficit이 없는 Conus medullaris ependimoma 환자의 치료에 대한 토론

3) 6월 집담회 성료

- 일시: 2015년 6월 1일 오후 6시  
- 장소: 국제 성모병원 3층 제2 강의실  
- 참석자: 41명

Case 발표

병원	제목	내용
인하대병원	Treatment of the Scalp AVF	Scalp를 누르면 어지러움 증, 이명 등의 동반되는 scalp AVF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 수술방법 등에 대한 토론
인천성모	4 cases of the perimesencephalic SAH	아직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perimesencephalic SAH의 원인에 대한 의견교환과 Engorged perforating artery of basilar top 가능성을 제시함.
길병원	Clinoidal Meningioma at Lt cavernous area	우측 cavernous meningioma가 main 병변이였으며 좌측 clinoid process 주변으로 커진 atypical meningioma에 대한 subtotal resection 이후에 치료 방침에 대한 토론
부천 성모	Scalp necrosis of the moyamoya patient after STA-MCA anastomosis and EDAS	소아 Moyamoya 환자에서 STA-MCA anastomosis와 EDAS 이후에 발생한 Scalp necrosis에 대해 성형외과적으로 tissue expander와 함께 scalp flap을 시행한 증례보고
순천향 부천	Surgical management of the large broad neck ICA aneurysm	large broad neck ICA aneurysm 환자에서 endovascular treatment를 시도 하였으나 어려웠고 이에 surgical clipping으로 적절히 치료된 증례보고
국제성모병원	Treatment of the Hydrocephalus patients	Cerebellum, Mass에 대한 수술 후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 동반된 hydrocephalus와 이에 VP shunt를 시행한 환자로 shunt malfunction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대한 토론



4) 8월 집담회 성료

- 일시: 2015년 8월 3일 오후 6시
- 장소: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하1층 순의홀
- 참석자: 43명

Case 발표

병원	제목	내용
부천성모	Rapid re-growing case of small wide neck Acom aneurysm	2주라는 짧은시기에 rapid-growing aneurysm 한 경우 대한 중례 보고로 수술에 따른 dissecting aneurysm 발생등에 대한 가능성에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등에 토론회 진행
인천성모	Two cases of the thoracic HNP -hard and soft disc with myelopathy	흔하지 않은 흉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동반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myelopathy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토론 - trasverse myelitis로 추정되는 등 진단 및 수술적 치료에 어려움에 대한 토론
길병원	Bursting fx after osteoporotic compression fx fusion surgery	고령의 환자에서 시행한 long level fusion 이후에 인접부위 골절에 대한 치료 방침에 대한 토론
인하대	Young cervical Ewing sarcoma	경추에 발생한 Ewing sarcoma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후 재발한 증례로 vertebral artery를 encircling하고 있어 2차 수술에 대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이에 이비인후과 협진등을 토론했.
순천향 부천	Case of the Shunt malposition	VP shunt 이후에 다양한 complications이 보고 되고 있는 데 이 증례는 두부에서 하지쪽으로 subcutaneous tunneling 이후에 shunt catheter가 lung과 diaphragm을 통과하여 진행한 증례로 원인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됨.

## 보직변경 및 취임

권정택 (중앙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으로 임명 (2015.09.01)  
이승훈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 (2015.06.19)  
최종언 (차음병원): 차의대 통합의학대학원장 취임 (2015.03.01)  
한양대학교 신경외과학 주임교수 변경:  
김재민 교수로부터 백광흠 교수로 변경 (2015.09.01)  
전신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장 유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겸직) 유임

## 근무지 변경

김국기 (의정부근로복지공단 의료전문위원):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장으로 변경 (2015.05.01)  
백민우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뉴고려병원 (2015.09.01)  
이승환 (고려대 안산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근무 시작 (2015.05)  
최종일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으로 근무지 변경 (2015.09)

## 개원

선한병원 (개원: 2015.09.30)  
· 개원의: 김현성, 정성현  
· 주소: 광주 서구 광천동 무진대로 971번길  
· 전문분야: 종합병원으로 척추센터, 관절센터, 내시경센터, 국제진료센터 등

## 결혼

윤선근 결혼식 (군외관, 2015 전문의)  
· 일시: 2015.08.22(토)  
· 장소: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 웨딩홀

오석전 교수님(자녀 결혼식)  
· 일시: 2015.06.20(토)  
· 장소: 서울

## 부고

김성태 교수님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친상: 2015.04.08  
정영균 교수님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친상: 2015.05.31  
명예회장 이영우 선생님: 2015.08.17  
명예회장 김윤범 선생님: 2015.10.02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해외연수

박동혁 (고려대 안암병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  
(2015.09~2016.08)  
박용숙 (중앙대병원):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국 (2015.09~2016.08)  
하성곤 (고려대 안산병원): UC Irvine, 미국 (2015.09~)  
양승호(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Texas University, USA (2014.09.01~2016.10.31)  
조광욱(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Texas University, USA (2015.02.01~2016.01.31)  
장동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Rush University, USA (2015.01.25~2016.01.24)  
윤원기(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Stanford Univ.,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INR),  
USA (2014.07.01~2015.07.01)

## 기타

오석전 교수님 (한양대 서울병원): 정년퇴임 (2015.08.27)

**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 또는 제안**

현재 전공의 주 80시간과 함께 전공의 평가와 병원 평가, 그리고 수련평가, 병원 협회 주최하는 평가 등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하나의 인터넷 창이나 하나의 서버로 통합시켜서 자료를 입력하고 사용하는 걸 개발하면 어떨까요? 학회 내에서 추진한다면 큰 인력의 낭비나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료, 연구와 관련된 수필, 산문 및 기념될 만한 사건의 투고도 환영합니다.**

작년 한해 '미생'이란 주제가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바둑을 두던 청년이 한 상사 회사에 비 정규직 인턴 사원이 되면서 겪는 마찰과 성장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하고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다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도 작년에도 펠로우 신분인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3년간 군복무 대신 전남 남쪽 끝 고흥에서 병원 공보의를 마치고 향후 진로를 고민할 때 몇 달 내내 잠을 못 이루었고, 본교는 대학에서 2년간 General neurosurgery 펠로우쉽을 routine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Part 에 대한 고민, 동기들에 비해 나 혼자 뒤처지고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 하루하루가 쉬운 날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미생의 주인공처럼 처음에 복사나 팩스, OCS 처방, 처음 보는 레지던트들과의 관계 등 모든 게 낯설었지만 하루하루 교수님들과 의국원의 배려와 가르침으로 점점 나아지는 제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지금은 이 자리가 주어진에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2년간 대학에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공부와 학회 활동에서의 배움이었습니다. 레지던트 때는 수술을 참여하고 하나씩 술기를 늘려가는 것이 제 설렘의 근원이었는데 전문의를 따고 나니 공부와 학회활동에서의 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시나브로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모르는 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곱씹어보면 요즘 의료 현실도 날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봉직의를 하는 제 또래 의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작은 전문병원의 과장이 되었거나 개원을 준비합니다. 로컬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는 아직까지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물질적인 부분에 많이 부족하진 않은 거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체계적으로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도 학문적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척추를 신경외과에서 뿌리내리고, 혈관내 수술이 신경외과로 주도적으로 바뀌게 한 건 실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의 헌신과 열정이었고 결국,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꽃을 피우신 겁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전통이 후학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신경외과 학회 그리고 많은 분과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 학회 때마다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또 발표를 해주는 모든 연자분들께 beginner 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젊은 의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대학에 있는 young step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자리, 프로그램, 모임 등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뿐 아니라 어딘가에서 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있을 젊은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다같이 힘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파이팅~!'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실 전임의 오재상

**제14차 아시아-태평양 신경외과 학술대회 (AACNS 2015) 성료!**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 기간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제 33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연수강좌 및 Update' 그리고 '제13차 아-태 두개저외과학회 학술대회'와 병행 개최된 "제 14차 아시아-태평양신경외과학술대회"가 성료되었습니다.



본 학술대회에는 총 48개국 1,590명이 참석하여 역대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신경외과학술대회(AACNS)' 중 최대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총 135 세션에서 1,091편의 연제가 발표되어 참석규모대비 매우 높은 학술참여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학술대회간 병행개최 과정에서의 많은 논의들, 본부학회에서 선임한 해외 PCO(Kenes Asia)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회원님들께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저력을 느낄 수 있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역대 최고의 학술프로그램을 구성해주신 AACNS 2015 왕규창 학술위원장 및 학술위원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신경외과학회 김동호 회장님, 임영진 이사장님, 박정을 총무이사님, 오창완 학술이사님, 학회임원진과 수련병원과장님들,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정신 회장님 이하 임원진, 그리고 무엇보다 학회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AACNS 2015 조직위원장 이규성, 총무위원장 정신

##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 준비 순조롭게 진행중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WFNO, World Federation of Neuro-Oncology)의 우리나라 유치가 2014년 9월 확정된 후 준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성공적인 학회 개최가 기대되고 있다.

세계신경종양학회는 2001년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학술대회가 열린 이후 북미(SNO, Society for Neuro-Oncology)와 유럽 (EANO, European Association of Neuro-Oncology), 아시아 (ASNO, Asian Society for Neuro-Oncology)가 번갈아 가면서 학술대회를 개최되고 있으며, 2009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우리나라에서 2021년 열리게 된다.

학회 준비위원회는 개최 확정 후 대한신경종양학회 회장을 역임한 가톨릭의대 홍용길 교수를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여 현재 후속인선을 진행 중에 있다. 중요 인사에는 수석 부회장에 김충현 교수(한양대의), 사무총장에 김정훈 교수(울산대의), 부사무총장에 김재용 교수(서울의대), 학술위원장에 김세혁 교수(아주의대), 학술 부위원장에 강석구 교수(연세의대)가 선임 되었다. 신경종양학의 치료가 다학제적 접근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연관된 다른 학제들의 참여도 필수적인데 윤환중 교수(충남의대 혈액종양내과), 정혜림 교수(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성태 교수(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김주영 교수(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박성혜 교수(서울의대 병리과), 이수재 교수(한양대 화학과)등 신경종양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부회장단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신경종양의 치료와 연구를 위한 다학제 학회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세부위원회를 구성중이다.

현재 2차례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를 마치고 해당 위원회별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이번 인선은 2021년 개최 학회인 점을 고려, 향후 우리나라 신경종양치료를 이끌어갈 40대 초반의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2016년 하반기 홈페이지 오픈을 목표로 행사 대행사 선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학회장소는 국제 학회인 점을 고려, 서울(코엑스)과 부산(BEXCO), 제주(ICC)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2016년 초반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회가 전세계 신경종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규모의 학회인 만큼, 준비과정에도 많은 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신경외과의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뇌종양 학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신경종양에 관한 다학제 학회인 대한신경종양학회에서도 인적자원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 세계신경외과학회의 성공적인 개최 후 우리나라 신경외과의 위상이 날로 높아 지고 있는 시점에서 2021년 세계신경종양학회의 개최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향후 2021년 5월,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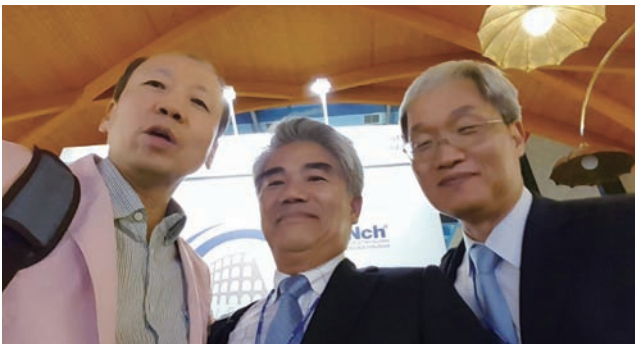


〈2021년 세계신경종양학회 한국유치 확정 후 열린 Presidential dinner에 참석한 국내 참가자들〉

## 세계신경외과학회 대표자회의 참가 후기 (15th WFNS Interim Delegate Meeting 2015)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필자는 지난 9월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 15회 세계신경외과학회 대표자회의(15th World Federations of Neurological Surgeons, WFNS-Interim Delegate Meeting)에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표자 4인의 일원으로 참석하였기에 그 경험과 결과를 적어본다.



(대한신경외과학회 delegate로 함께 참석했던 오창완, 박인성 교수 와 함께)

오전 8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7시까지 약 11시간에 동안 마라톤회의로 진행되었다. 현 WFNS 회장 Tu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약 200명의 각국 신경외과학회 대표(delegate)들이 모여 신입 회원국의 인준, 회칙 개정, 차기 세계신경외과 학회장 선출, 차기 학회 장소 등을 결정했다.

먼저 presentation(이하 PT)을 진행 후 그 결과를 듣고 전자투표로 결정하였다. 오전에는 신입회원국가에 대한 찬반투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제 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정회원 학술대회회장 겸 조직위원장에서 당시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불합리한 회칙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가의 의견을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칙이나 규정이 소위 잘나가는 선진국 위주보다는 개발도상국의 학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려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후에 진행된 차기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로 인한 오류나 잡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이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이탈리아 대표가 선출되었다. WFNS 지명 위원회서 추천받고 객관적으로 우월해 보였던 독일 대표가 개혁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신에 이탈리아 대표에게 무너지는 모습은 WFNS 60년 역사에서 혁신적인 일로서 일반 delegate들의 민주화(?) 투쟁이 승리로 끝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날의 피날레는 WFNS 개최지 투표과정이었다. 먼저 WFNS Interim 2019는 호주 골드코스트, 중국 베이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곳이 경합했는

데 여의사 Dr. Feng이 PT를 한 중국으로 공이 돌아갔다. 동양의 이미지와 그간 국제대회를 개최했던 경험을 조화롭고 설득력 있게 발표했던 그녀의 힘이 발휘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WFNS 2021 개최지 투표는 4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의 요코하마를 물리치고 콜롬비아 보고타로 결정되었다. 일본은 불리한 시기에 진지한 열정과 감동 없이 임하였기에 2007년 Kyoto에 이어 또다시 패배의 쓴 잔을 들고 말았다. 필자의 견해로 볼 때 일본이 패한 이유는 콜롬비아에 비해서 강력하게 개최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도 있었으나 Interim 2019가 중국으로 결정되었고 WFNS 2013이 서울에 개최되었던 점에서 투표에 참석한 delegate들이 아시아보다는 남미 지역에 한 표를 더 행사한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WFNS 2021 개최지 전자 투표 과정과 1차 결과. 이후 4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개최지는 콜롬비아 보고타로 결정되었다.)

회의 참석하여 소득이 있었다면 국내외 젊은 의사들 교육을 위해 대한신경외과학회가 10월 발행 예정인 영문교과서 "Essentials of Neurosurgical Procedures and Operation"의 편찬위원장 자격으로 현 WFNS 회장 Tu교수를 만나 교과서 추천사를 받았고 향후 상호 협조를 논의했던 점이였다. 개인적으로 기억될 만한 일은, 학회 참가하러 가던 중 공항에서 세계랭킹 1위 프로골퍼 박인비 선수를 조우하였고 박선수와 기념촬영과 사인을 얻게 된 우연이 아닌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석 기회를 주신 대한신경외과학회 임명진 이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33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활동











